

“하베스트 Narl 혈값 매각하고도 추가 비용 분쟁 휘말려”
경향신문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○ 보도매체 : 경향신문(‘15.8.26)

○ 제목 : 하베스트 Narl 혈값 매각하고도 추가 비용 분쟁 휘말려

□ 해당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
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계약파기 논란

- NARL 매각완결(‘14.11.13) 이후 NARL과 관련된 대한 모든 권리·의무
는 매수자(SilverRange)에게 이전되었으며 법률적 관점에서 매각은 종
결되었으며 계약 파기 가능성 없음

○ 추가비용 보상 논란

- NARL 매각완결 당시 원유탱크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
NARL과 탱크수리업체간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, 금년 1월
캐나다 법원은 NARL이 탱크건설업체에게 420만달러를 보상하라는
판결이 남

- 매수자(SilverRange)는 동 비용이 매각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하베스
트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, 하베스트사는 매매계약서에 따
라 매매종결일 기준 중재·소송건은 매도자 면책사항임을 주장하여
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

- 이에, 매수자(SilverRange)는 양사에서 이권이 있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하베스트사에 지급
- 매수자 및 매도자간 정산에 이권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선임한 제3의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아 확정토록 규정
- 현재 양사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제3의 회계법인(E&Y)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, 자문결과 하베스트사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하베스트사는 동 금액(약 C\$4백만불)을 SilverRange로부터 추가로 수령하게 됨

□ 기사 보도요약

-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공장(Narl) 매각 후에도, 과거 원유탱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(420만 달러)처리 문제로 하베스트 Narl 매수자인 실버레인지와 매도자인 석유공사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, 최악의 경우 날 매각과 관련된 계약파기 논란으로 불거질까 우려됨.